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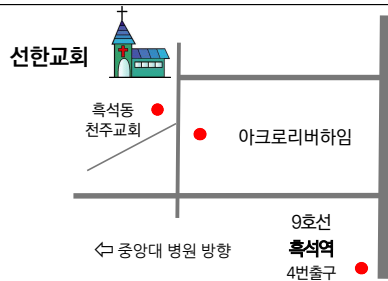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중 국 어 예 배	주일 오후	4:00	청 소 년 부	오전 10:00	마리아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후 1:00	드보라회	오후 2:00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저녁	8:30	영 어 예 배	오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셀 가족 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국 내 선 교 사	오인숙, 한 배 선, 강 성 규
	교육목사 권 인 혁	해 외 선 교 사	이금춘(김인실), 조나단(강야엘)
	전임전도사 김 진 만	협 력 교 회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협력전도사 오 효 남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은 퇴 장 로	고 상 돈, 김 대 희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박 희 태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장 로	박 영 근 (집사장)	관 리 장 로	손 석 규
	유 신 웅, 조 윤 익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조 계 승, 윤 호 중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종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 6:8)

Here am I, Send me!

실 천 사 항 기도의 삶 거룩 / 사랑의 삶 선교사의 삶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삶 의 방 식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빌 4:1-7)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1



담임목사 임 춘 배

오 전 예 배	오전 9: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오전 11:00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8장 (통일찬송가 9장)
교 독 문		교독문 23 (시편 43편)
찬 양 과 경 배		428장 (통일찬송가 488장)
대 표 기 도		유신웅 장로
말 씬 봉 독		마태복음 5장 17 ~ 20절
설 교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관계 (임춘배 목사)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그렇게 살아가리
축 도		임춘배 목사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수 요 예 배	오후 7:30	예배장소 : 본 당	인도자 : 임춘배 목사

바울의 동역자들 (롬16:1-16) 임춘배 목사

교 회 소 식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배 안내

1. 주일예배: 2부(9시30분/11시)로 나누어 드림
(11시 예배영상 제공)

2. 주중예배: 수요일예배와 금요일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드림
(영상제공하지 않음)

3. 각종행사: 각종 모임과 행사는 당분간 갖지 않음

4. 헌금안내: 당분간 계속해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2. 개인경건훈련 안내

1. 가정예배드리기 2.매일큐티하고 기도하기

3. 성경일독하기: 일독하는 분들은 사무실에 알려주세요.
(일독 기념품 증정)

4. 경건서적읽기 5.부서별 비대면 성경공부
3. 코로나19 기도 제목

1. 코로나 19 종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2. 코로나 19 치료를 위해 중사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3. 코로나 19 확진자들의 완치와 빠른 백신 개발을 위해 기도합니다.

4. 중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에 회개와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5. 코로나 19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도록 기도합니다.

6. 코로나 19를 통해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4. 떡제공

담임목사님의 생신을 맞이하여 교회에서 떡을 제공합니다.

한주간의 기도제목	코로나사태로 사방으로 에워싸움을 당한것 같은 상황에도 자유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함께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복음의 증거가 되는 삶을 살기를 순종과 감사위에 가정을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	---

가정예배	화평케 하는 자
찬송 : ‘주님 주실 화평’ 327장(통 361) 본문 :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 팔복의 일곱 번째 복은 화평케 하는 자의 몫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은 원어로 ‘평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적극적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묘사는 이 세상이 이미 진정한 평화가 깨어진 상태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전쟁터와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상태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수직관계가 깨지니, 수평관계도 어그러진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 인간과의 관계도 단절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평화는 어떻게 완성됩니까. 진정한 사랑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아무리 탁월한 도덕과 법, 제도로도 근본적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무용지물입니다. 죄로 물든 사람들은 서로를 속이고 죽이고 빼앗습니다. 참된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 깨어졌던 평화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때야 사람과 사람 사이 뒤틀렸던 관계도 비로소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팔복의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화평케 하는 자, 곧 피스메이커입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교회의 어려움을 막아 냅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선한 영향력은 직장에도 미칩니다. 껄끄러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윤활유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들은 지역 공동체, 나라와 민족의 다툼과 갈등도 봉합합니다. 화평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샬롬’입니다. 샬롬은 하나님의 선물로, 전쟁이 그치고 번영과 형통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초대교회는 온전한 샬롬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혔던 거대한 담을 허물었습니다. 하나 될 수 없었던 그들이 한 몸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양반과 천민이라는 신분제도를 깨뜨리고 주 안에서 서로를 형제라 불렀습니다. 윌리엄 월버포스는 평생 기도하며 노력한 끝에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은 흑과 백의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인간이 세운 모든 장벽을 다 제거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소외와 멸시로 점철된 이 시대의 아픔을 치유할 피스메이커를 기다리십니다. 높아진 것을 낮추고 낮아진 것을 높이는 사람, 화평의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말씀	
제목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관계 (마5:17-20)
서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율법을 알아야 합니다.
본론	1. 율법에 대한 가르침 (1)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심(17절) (2)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 짐(18절) (3) 계명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 일컬음 받음(19절) (4)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가 함(20절) 2. 교훈 (1)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동일하다. (2) 하나님의 계명을 전심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자. (3) 완전한 의를 행하도록 노력하자.
결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킴으로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Q.T.		택함받은 자의 찬양	날짜 : 6월 29일
찬양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본문	시편 135:1-14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자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와 종들은 예배를 인도하며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경배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근본적인 의무인 동시에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특권입니다. 우리는 찬양할 때 형식적이고 강압적인 찬양보다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실 대상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그분의 사랑을 입은 자는 마땅히 주의 아름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재능과 힘으로 택함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선택된 까닭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함을 입은 모든 성도들은 그 어떤 찬양으로도 사랑의 은총을 다 표현하지 못할 뿐이니 아쉬울 뿐입니다. 오늘날 택함을 입은 성도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믿는 자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야 합니다. 본문 5절의 '주'는 '다스리다'란 어근에서 유래된 것으로 주권자를 뜻합니다. 주에서는 모든 신들을 통치하시는 분으로서 지극히 광대하십니다. '광대하시며'로 번역된 히브리어 '가돌'은 탁월, 장엄, 숭고 등의 뜻을 지닌 말로 하나님의 유일성과 절대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며 그 분에 올리는 예배를 한낱 형식과 절차에 묶어 두려고 하는 것은 모든 신보다 높으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행위임을 알게 됩니다.		
	묵상질문 1.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기억이 있나요?		
오늘의 기도			

개인성경공부		온 맘 다해 찬양하라!
찬양과 기도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새 293/통 414)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팀 켈러의 자서전 「고통에 답하다」에 수록된 일화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두 청년 배우를 만났습니다. 마침 두 사람이 같은 역할을 놓고 오디션을 치렀습니다. 둘에게 그 역할을 맡는 것은 일생일대의 중대사였습니다. 한 청년은 배우로 성공하는 일에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소망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삶을 즐기며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다른 청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크리스천이었는데, 몇 차례 좌절을 통해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디션에서는 두 사람 모두 배역을 맡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청년은 끝없는 낙담에 빠졌습니다. 우울한 시기를 보내며 악물에게까지 손을 댔습니다. 두 번째 청년은 처음에는 몹시 실망해서 눈물을 쏟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평정심을 되찾고 “제 생각이 짧았어요. 다른 일로도 하나님을 기쁘고 영광스럽게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 청년은 연기를 자신의 목표를 향해 가는 수단으로 삼았던 반면, 첫 번째 청년은 배우라는 직업 자체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오디션 탈락이라는 위기가 첫 번째 청년의 믿음을 단번에 휩쓸어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두 번째 청년의 삶에서는 그 무엇도 청년의 믿음과 삶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떠한가요?	
말씀 나누기	시편 136:1~26	
묵상포인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습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모든 피조물과 역사 속에 명백히 나타났고, 이것이 성도가 그분을 영원히 찬양할 이유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감사할 이유가 없더라도, 선행과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함께하실 것을 믿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환난과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는 성도는, 어느 순간 자신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숙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할 기본 이유는 무엇인가요?(1절) 시편 기자가 찬양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무엇인가요?(5~9절)	
적용하기	완전히 선하시고 영원히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서 성도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갖춰야 할까요?	
함께 기도하기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으로 그 신뢰를 고백하는 주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의 기도문		
기도 (중보기도)		

매일 Q.T.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	날짜 : 7월 3일
찬양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오		
본문	시편 138:1-8		
	시인은 온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는 찬양을 신들 앞에서 드리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굳은 신앙과 확신 가운데서 다른 이방 신들을 조롱하듯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을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이방 열국들이 많은 신들 앞에서 찬양하며 경배하지만 시인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시인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인의 찬양과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히 지키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시고 그 말씀의 권위와 영광을 높이셨다는 뜻입니다. 인자와 성실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써 자신의 영혼을 강하게 하셨음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써 구원 역자를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며 승리케 하실 것임을 주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인하여 믿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러한 확신 있는 신앙이 성도에게 있어야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실망과 좌절하지 않고 원수와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구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길로 행하여 언제나 승리하는 성도의 복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묵상질문	1. 내 계획과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오늘의 기도			

매일 Q.T.		마땅히 드려야할 찬양	날짜 : 6월 30일
찬양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본문	시편 135:15-21		
	시인은 자연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섭리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상 대하는 자연 자체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보여 주는 자연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의 모든 현상들을 보면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같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숨결을 의식하는 것 즉 하나님을 창조주로, 우주의 운영자로 온전히 믿는 것은 성도들의 신앙의 출발점이 됩니다. 시인은 출애굽 사건을 회고하고 있는데 당시 상황에서 출애굽이란 불가능한 것으로 보였으나 하나님께서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려 이 영광의 탈출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또 시인은 광야에서와 가나안 전쟁 당시에 거의 모든 승리를 언급하는데, 강력한 무기와 정예화된 군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의 손길이 있으니 우리 믿는 자들은 늘 자신감 있게 생활해 나가야 합니다. 본시는 처음을 '할렐루야 여호와와 이름 찬양하라'로 시작했는데 결론으로도 찬양을 권고하는 마지막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신다고 했는데 이곳은 예루살렘 남동쪽의 언덕으로 광의적으로는 예루살렘 전체를 가리키고, 상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국 곧 하늘을 의미하고 부름받은 구원자들이 이르게 될 믿음의 견고한 도성을 뜻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함께 거하시는 모든 곳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무력한 우상의 존재를 확연히 깨닫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념하며 항상 주를 찬송해야 합니다. 목소리의 아름다움과 조화로만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의 참된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묵상질문	1. 내 삶에 가장 영향을 끼친 찬양은 어떤 찬양이었나요?		
오늘의 기도			

매일 Q.T.		하나님께 감사하라	날짜 : 7월 1일
찬양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본문	시편 136:1-26		
	시인은 찬양을 권고하며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이유로 그분의 위대하심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며 인자하신 성품과 신중의 신이시며 주종의 주인이신 그분의 높으심을 찬양하되 이해 관계를 초월하여 그분의 거룩하심과 높으심을 영원히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와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위대한 사역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오직 말씀과 지혜로 하셨습니다 모든 인간 특히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큰 기사에 우리는 다만 감사의 찬미를 올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 사역에 나타난 그의 능력은 인간의 지식이나 이성으로는 도저히 규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인간 역사의 흐름에 따라 과학을 비롯한 각종 학문이 발달하자 인간들은 끊임없이 이 신비를 벗기기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지금도 수많은 도전적 노력들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역사하심은 인간의 사고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간은 다만 믿고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것을 최선의 도로 삼아야 합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구원 사역을 영원토록 수행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사 속에서 그분만이 찬양과 감사를 받으실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께서는 빛과 해, 달, 별의 천체를 만드시고 그것으로 주야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자연 생태의 보존과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빛처럼 중요한 것도 드뭅니다. 주께서는 이 빛으로 인류의 삶을 주관하시듯이 그리스도의 빛을 놓하여 영적 암흑에 던져진 인생을 구원하시교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피조된 이 세계를 볼 때에 그저 평범하게 보아 넘길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신 섭리와 은총을 보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묵상질문	1.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중 가장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의 기도			

매일 Q.T.		포로의 노래	날짜 : 7월 2일
찬양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본문	시편 137:1-9		
	시인은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으로 주신 언약의 땅 예루살렘을 향한 그리움의 눈물이었으며 이방 사라의 포로로 잡혀 온 자신들의 비참한 처지에 대한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한때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열방을 다스리던 영화로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 파서서 가나안에서 쫓겨나 이방 나라의 노예가 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신 땅을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언약을 파기하므로 도로 빼앗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슬픔은 이방의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보다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때 이스라엘은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린 이스라엘은 깊은 슬픔 속에 잠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래를 청하며 자신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고 강요했음을 시인은 증거합니다. 시온의 노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거나 포로 된 이스라엘 백성은 수치스럽게도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을 호소했을 것입니다. 시인이 이방 족속들을 저주한 것은 단순히 민족 감정 차원에서 한을 풀기 위함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였기에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해 주실 것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아 이스라엘의 죄악을 징벌하면서도 스스로 교만히 행한 이방 족속들이 저주의 심판을 받음은 당연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묵상질문	1. 절망스러운 상황속에서 나는 어떤 기도를 드렸나요?		
오늘의 기도			